

# 담양군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새 단장 후 재개관

### 과기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공모사업' 선정, 과학체험관으로 개편 오감 자극하는 체험 공간으로 구성해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길 내에 자리한 호남 기후변화체험관(담양어린이과학체험관)이 새 단장 후 다시 문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 단장을 마친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은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게 됐다. 어린이과학체험공간은 습지생태계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실현하는 VR 체험, 기후캐스터 체험과 지진, 화산, 주상절리 생성 등 오감 체험 공간 등 다양한 놀이 체험 및 탐구 공간 조성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형 과학 체험 공간으로 구성했다.

## 나주시 수의계약 낙찰률 3% 높였더니...지역경제 '활력'

나주시가 수의계약 낙찰률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수의계약 낙찰률을 3% 상향한 결과 공사·용품·용역 등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시중에 풀려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보탬이 됐다. 그동안 제각각 달랐던 공사·용품·물품별 수의계약 낙찰률을 통일하고 3% 일괄 상향했다. 그 결과 지난 연말까지 공사는 6억3000만 원, 용역 4억3000만 원, 물품 7억2000만 원 등 총 18억 원 규모의 낙찰 차액이 발생해 지역업체 이익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면 예정가격 2000만 원짜리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역업체 A사가 수주했다면 기존 나주시가 업체에 지급한 계약금액은 1780만 원이지만 낙찰률 상향으로 3%(80만 원) 많은 186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낙찰률 상향과 함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대비 관내 업체 수의계약 체결 비율도 높였다. 물품 구입의 경우 2022년 대비 약 4.3% 증가한 13억여 원을 관내 업체에 배려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여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됐다. 나주=김동규기자

## 화순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올해 말까지 기간 연장...20년부터 약 4억 3,700만 원 지원

화순군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화순군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순군민 또는 화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모든 기종을 감면된 금액에 임대할 수 있다. 단,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임대료 감면 1억 1,5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행한 감면 혜택으로는 농가 2,849호에 약 4억 3,7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 경영비 절감,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곡성국악전수관 '상반기 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 오늘부터 25일까지 선착순

곡성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상반기 국악교실'에 참여할 수강생 1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전했다.

'상반기 국악교실'은 2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26주 과정으로 장구, 농악, 판소리, 한국무용 등 8개 분야 11개 강좌가 진행되고, 올해부터는 해금 강좌가 신설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곡성국악전수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강좌별 무료로 진행되고 모집 인원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은 폐강된다.

곡성국악전수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국악을 통해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국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국악전수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국악전수관(☎061-360-8456)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혜영 기자

## 구례군, 베트남 다낭시 선짜군과 우호교류 협약



구례군은 1월 11일 베트남 다낭시 선짜군청에서 선짜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김수철 군의회 부의장 등 15명의 구례군 교류 방문단과 영지연 주다낭 대한민국 부영사관, 다낭시 인민위원회 당 꾸앙 쩡영 사무차장, 선짜군 당 위원회 팜 썬 썬 서기관, 군 인민위원회 황선

짜 위원장을 비롯한 43명의 선짜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식전 공연으로 구례 출신의 국악 예술인의 판소리 공연이 펼쳐졌고, 부대행사로 두 도시의 사진-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협약식에서는 자치단체 간 협약 서명과 상호 우호를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기념품 교환 등이

진행됐고, 협약서에는 두 도시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도모하고, 관광,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으로 두 도시는 향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사절단 및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 사업,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가 함께 더 밝고 역동적인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선짜 위원장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화답했다.

선짜군은 베트남의 관광 알현지인 다낭시의 6개 군 중 하나로 세계 10대 해변으로 선정된 미케 해변과 67m 높이의 해수관음상으로 유명한 린응사(靈應寺) 등 국제적인 관광지가 위치한 곳이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정부 비전 2045'에서 다낭시를 2030년까지 중앙정부 1급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선짜군 일대를 금융 중심지구로 개발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장성군 지역경제 역량 전국 최상위권 입증

장성군의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성장 잠재력이 전국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경제학회·연구원이 공동 조사 발표한 '2023년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은 종합평가에서 전국 군단위 4위에 올라 은상을 수상했다. 전라도 권에선 유일할 수상 기록이다.

부문별 평가 결과도 인상적이다. 장성은 투자유치 부문 최우수상, 지역혁신 부문 은상을 수상해 총 3관왕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방물가 △투자유치 △기업지원 △골목경제 △문화관광 △농업경제 △지역혁신 △경제리더십의 9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의 공식 통계자료 등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장성은 종합평가 전국 4위를 기록해 초대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은상을 차지했다. 군은 지난 7월 숙원사업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 설립'을 확정 지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과 공직자가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제1회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종합 은상 수상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면서 "새해에는 지난 성과를 주춧돌 삼아 장성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성=김수권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남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